

2025. 8. 14

미국 2분기 기업실적 현황 및 주요 이슈

신술위 | 책임연구원(3705-624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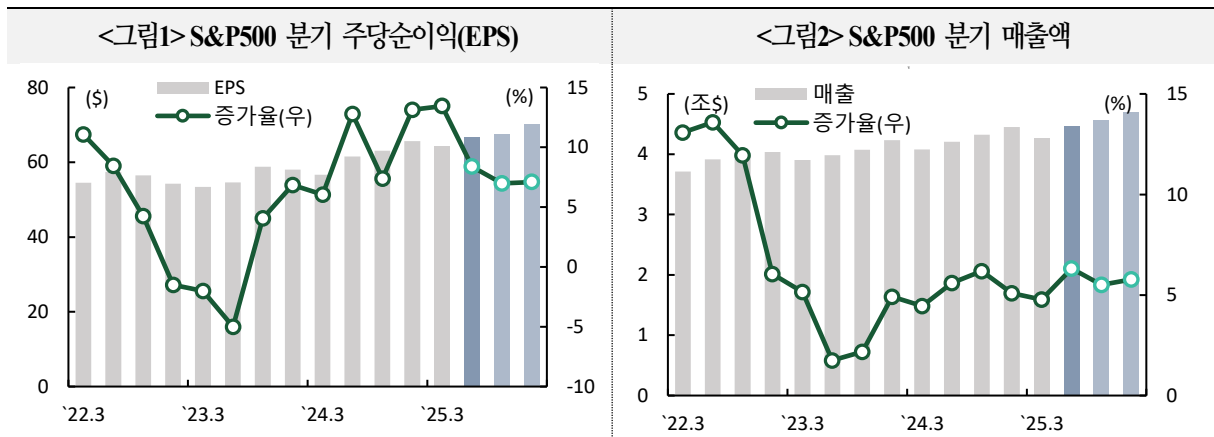
박승민 | 책임연구원(3705-6217)

- [이슈] '25.2분기 S&P500 기업 주당순이익(EPS)은 8.4%(yoy) 증가하며, 전 분기(13.4%, yoy) 대비 증가세가 둔화. 매출액은 6.3%(전분기 4.8%) 증가(Bloomberg, 8/12 기준)
- [주요 관전 포인트] 양호한 AI 실적 등에 힘입어 기업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부터 고관세가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- [평가] AI 기업 실적호조와 고관세 부과 지연 등으로 2분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나,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

□ [이슈] '25.2분기 S&P500 기업 주당순이익(EPS)은 8.4%(yoy) 증가하며, 전 분기(13.4%, yoy) 대비 증가세가 둔화. 매출액은 6.3%(전분기 4.8%) 증가(Bloomberg, 8/12 기준)

* 8.12일 현재 453개 기업이 2분기 기업실적을 발표

- 최근 1년간 S&P500 기업이익 증가율은 '24.3분기(7.4%)를 제외하면 모두 10%대를 기록. 현재 잠정치대로 기업이익이 확정될 경우 3분기래 최저 수준
 -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 반응은 순이익 서프라이즈에 0.7%, 매출 서프라이즈에 0.6%, 순이익 및 매출 동시 서프라이즈에 1.2% 상승. 반면 어닝쇼크에는 각각 -5.3%, -3.0%, -8.3% 하락(Bloomberg)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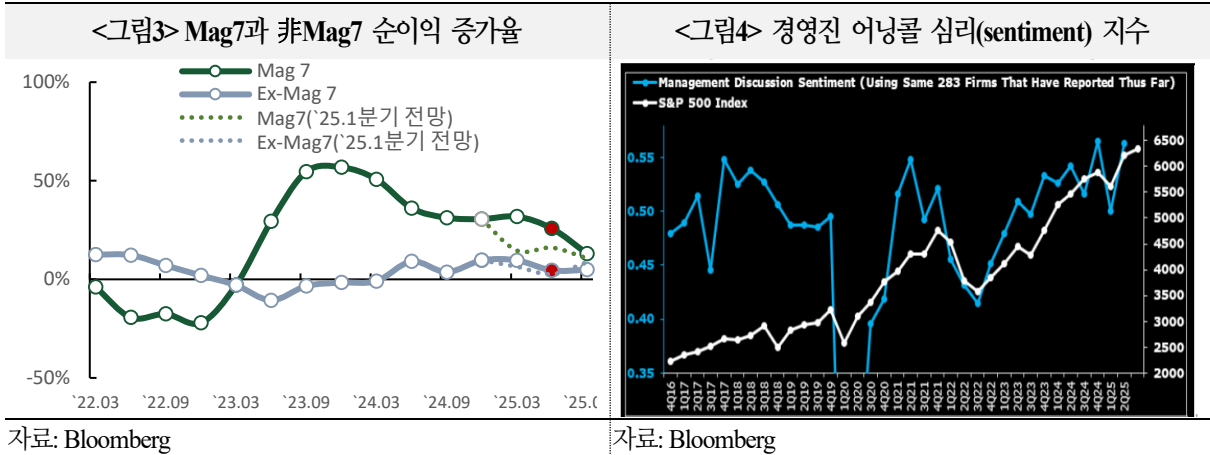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-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(EPS 24.5%, yoy), IT(22.0%), 헬스케어(8.1%), 금융(7.9%)이 양호. 반면 에너지(-21.5%), 자재(-1.5%), 산업재(-0.2%), 유틸리티(-0.2%) 부진
 - 주요 7개 빅테크 기업(Mag7) 중 메타(EPS 38.4% yoy), 아마존(33.3%), 마이크로소프트(23.7%), 알파벳(22.2%), 애플(12.1%)은 예상치를 상회. 반면 테슬라는 전년동기비 23.1% 감소. 엔비디아는 27일 발표 예정

□ [주요 관전 포인트] 양호한 AI 실적 등에 힘입어 기업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부터 고관세가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- (AI 주식 실적 호조) 빅테크 및 비빅테크 실적간 차이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. 이에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 향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증가
 - 주요 빅테크 기업(Mag7)과 비Mag7 기업간 실적 증가율 차이는 '24.3분기 27.6%p → '24.4분기 20.9%p → '25.1분기 22.2%p에 이어 '25.2분기 21.2%p로 유지
 - 관세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과 AI가 견인하는 미국 기업실적 개선 흐름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으며, 현재까지는 후자가 우세(Blackrock)
 - 당분간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(capex)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 시각이 유지
 -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메타 및 아마존의 투자규모는 '25년중 전년비 50% 증가할 전망으로 S&P500내 여타 기업들의 평균 증가율(+4%)을 크게 상회(BoA)
- (기업심리 개선) 기업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기업이 하향한 기업보다 많은 가운데 어닝콜 등 기업 코멘트에서 향후 경영 여건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으로 개선. 다만,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
 - S&P500 중 38개 기업이 '25.3분기 EPS 가이던스를 하향, 40개가 상향, '25년 연간 EPS에 대해서는 102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하향, 161개가 상향(Factset)
 - S&P500 경영진들은 금번 어닝콜에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, 기업심리 서베이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(Bloomberg Intelligence)
 - 어닝콜에서 경기침체(recession)를 언급한 기업은 16개 기업으로 전분기 124개 대비 87% 감소(Factset)
 - 다만, 애플이 관세 여건이 유동적(evolution)임에 따라 비용 전망에 어려움을 표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. 월마트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

- **(고관세 영향 3분기부터 본격화)**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익마진이 높게 유지되는 등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제한적.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

- **이익마진:** S&P500 기업들의 '25.2분기 순이익 마진'은 고관세 부과 유예, 선주문 등에 힘입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13.4%를 유지. 업종별로는 헬스케어(8.1%), IT(25.8%), 유틸리티(12.9%)가 전분기 대비 소폭 축소
 -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응책을 마련했다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며, 선주문분 수입 재고 소진에 따라 3분기부터는 이익마진 감소 예상(HSBC)
 - 애플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분기에는 관세 관련 비용이 약 11억 달러 발생할 것으로 추정
- **매출:** 대부분 업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,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이 적은 IT와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의 매출 증가폭이 높은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가격탄력성이 높은 업종은 매출이 감소
 - 자동차·자동차부품 -6.3%, 내구재·의류 -3.9%, 가정·개인용품(household & personal products) -8.0% 등은 매출이 감소. 반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담배 4.6%, 소비자 서비스 11.9% 등은 매출이 증가

□ [평가] AI 기업 실적호조와 고관세 부과 지연 등으로 2분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나,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

-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형 IT 기업들의 경우 대규모 AI 투자(전년비 50% 상회)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 경기둔화시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46 혹은 swshin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